

광주경중, 강기정 광주시장 금요조찬포럼

“광주, 민주주의 상징 넘어 산업·일자리로 증명해야”

“광주가 걸어온 역사적 상징을 넘어, 산업과 일자리로 도시의 미래를 증명해야 할 시점입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 9일 홀리데이인 광주 호텔에서 열린 광주경영자총협회(회장 양진석) 제1708회 금요조찬포럼에서 ‘광주·전남 대통합, 부강한 광주의 확장’을 주제로 강연하며 광주가 감당해온 정치적 역할과 앞으로 마주할 경제적 과제를 짚었다.

강 시장은 “광주는 세계가 아는 도시지만, 그 명성이 아직 시민의 삶으로 연결되지는 않았다”며 “이제는 민주주의의 상징을 넘어 산업과 일자리로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광주가 이미 글로벌 인지도를 가진 도시라는 점을 먼저 언급했다.

강 시장은 “해외에서 광주를 아느냐고 물으면 서울·부산 다음으로 ‘광주’를 말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비엔날레와 5·18은 이미 세계가 아는 브랜드”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정권을 만들고 역사를 움직였지만, 정작 광주는 청년이 떠나고 ‘못 사는 도시’라는 낙인을 오랫동안 감당해 왔다”며 “정치적 성취가 경제적 자립으로 이어지지 못한 결과”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러한 현실에 대한 해법을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광주의 두 번째 도약’으로 규정했다.

강 시장은 “광주는 늘 정치의 중심에 있었지만, 경제에서는 스스로를 증명하지 못했다”며 “이제는 민주주의로 등장한 도시가 산업으로 자립하는 시간”이라고 말했다.

재정 성과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 설명했다.

AI 실증·반도체·행정 통합으로 ‘부강한 광주’ 강조 ‘춤춤한 인재 사다리’ 기술로 먹고사는 도시 만들기

강 시장은 “2026년 정부 예산에서 광주는 전년 대비 16.6% 증가라는 역대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다”며 “윤석열 정부 시기 마이너스를 겪었던 재정 구조를 정상 궤도로 되돌린 결과”라고 평가했다.

특히 “올해만 신규 국비 사업 56건을 확보했고, 이 가운데 20여건 이상이 국회 증액을 통해 반영됐다”며 “지난 20여년간 광주 예산 역사에서도 보기 드문 성과”라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자신의 정치 이력을 언급하며 정책 중심 리더십을 강조했다.

그는 “나는 싸움의 정치인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정책위의장 출신”이라며 “정책이란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먼저 투자할지를 선택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요하지 않은 정책을 과감히 뒤로 미루는 것도 리더의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AI와 반도체를 둘러싼 국가 전략과 관련해서는 광주의 역할을 분명히 했다.

강 시장은 “AI 산업은 데이터센터·전력·반도체·인재가 동시에 움직여야 가능한 국가 설계”라며 “광주는 국가 AI 데이터센터를 통해 기업 실증과 창업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광주 기업과 청년 기업이 데이터센터를 저렴하게 활용해 실제 산업으로 연결하고 있다”며 “이것이 보여주듯 AI가 아닌 실증 기반 AI”

라고 설명했다.

반도체 정책과 관련해서는 수도권 집중에 대한 문제의식도 드러냈다.

강 시장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막대한 전력을 요구하지만, 그 전력은 결국 호남에서 공급받게 된다”며 “후속 단계의 일부라도 호남으로 재배치하는 것이 국가 균형 발전의 최소 조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광주는 첨단 패키징과 실증 중심의 반도체 전략으로 길을 열고 있다”고 밝혔다.

인재 양성에 대해서는 “광주는 기술 인재로 먹고사는 도시”라고 규정했다.

그는 “AI 사관학교, 반도체 특성화 대학, AI 영재학교까지 인재 사다리를 촘촘히 깔고 있다”며 “기업이 ‘사람이 없다’는 말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자율주행과 AI 실증 정책도 소개했다.

강 시장은 “올해 하반기부터 광주 도심 외곽을 중심으로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 차량 200대가 실증 운행된다”며 “대중교통이 취약한 지역부터 적용해 시민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광주·전남 행정통합과 관련해서는 “통합은 행정 기술이 아니라 정신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통합법에는 민주주의, 독립운동, 산업 전환의 정신이 담겨야 한다”며 “단순한 조직 합병이



지난 9일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에서 열린 광주경영자총협회 제1708회 금요조찬포럼에서 강기정 광주시장이 ‘광주·전남 대통합, 부강한 광주의 확장’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국가 설계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시 체제를 통해 재정·행정·산업 권한을 실질적으로 이양받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강 시장은 “광주는 늘 역사의 출발점에 서 있었다”며 “이제는 정치의 도시를 넘어 AI·에너지·반

도체·모빌리티가 결합된 경제 도시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6년은 광주가 다시 한 번 스스로를 증명해야 하는 시간”이라며 “부강한 광주는 구호가 아니라 선택의 결과로 만들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송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로봇이 스스로 판단…현대차·기아, AI 칩 개발

‘CES 파운드리’서 공개…로보틱스 토탈 솔루션으로 확대

현대차·기아가 로봇 인공지능(AI) 칩 개발을 마치고, ‘피지컬 AI’ 실현 계획을 공개했다.

현대차·기아 로보틱스랩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파운드리 2026’에 참가해 AI 반도체 전문기업 ‘딥엑스(DEEPX)’와의 협력을 통해 ‘온-디바이스 AI’를 위한 AI 칩을 개발, 양산 준비를 마쳤다고 11일 밝혔다.

CES 파운드리라는 CES에서 올해 처음 선보이는 전시 및 발표 프로그램으로, AI와 불특정인, 양자기술 등 3대 혁신기술의 통합적인 논의를 목적으로 한다.

현대차·기아와 딥엑스가 공동 개발한 온-디바이스 AI 칩은 5W 이하 초저전력으로 움직이며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검출

해 인지와 판단까지 수행한다.

특히 지하 주차장이나 물류센터 등 네트워크 연결이 어려운 장소에서도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안정성이 뛰어나다.

또 로봇을 특정 서비스 분야에 최적화된 형태로 개발할 수 있고, 클라우드 방식의 AI와 달리 네트워크를 통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빠른 반응속도를 보이며 보안에도 강점이 있다.

이번 협력은 현대차·기아 로보틱스랩의 AI, 소프트웨어 개발 역량과 딥엑스의 반도체 기술을 결합해 비용 효율성과 성능, 공급 안정성 면에서 최적의 균형을 달성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현대차·기아는 이번 협력을 통해 앞으로 양산될 로봇에 탑재할 최적화 솔루션을

조기에 확보하게 됐으며, 동시에 공급망 측면에서도 유연성과 안정성을 강화했다.

특히 고령화와 산업 안전, 노동력 부족 같은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로봇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현대차·기아는 이번에 개발한 온-디바이스 AI칩을 통해 안정적인 피지컬 AI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대차·기아 로보틱스랩장 현동진 상무는 “현대차·기아 로보틱스랩은 단순히 로봇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로봇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피지컬 AI 파이프라인의 마지막 접점에서 사용자가 실제로 경험하는 가치를 창출하고, 저전력으로 움직이면서도 효율적이고 스마트한 로봇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현대차 아틀라스, CES 2026 ‘베스트 로봇’

인간 중심 AI 로보틱스 시대 협업 로봇 비전 제시

현대차그룹의 로보틱스 기업 보스턴다이나믹스가 개발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가 CES 2026에서 글로벌 IT 전문 매체 CNET이 선정하는 Best of CES 2026에서 ‘Best Robot (최고 로봇)’ 상을 수상했다.

CNET은 글로벌 기술 미디어 그룹이자 CES 공식 파트너로, ‘Best of CES’ 선정과 심층 기술 분석을 제공하는 대표적 테크 저널리즘 기관이다.

아틀라스는 라스베이거스에서 공개된 현대차그룹의 AI 로보틱스 전략의 핵심이다. CNET은 아틀라스의 자연스럽고 인간에 가까운 보행 능력, 세련된 디자인 등 핵심 요소를 높이 평가하며 ‘Best Robot’으로 선정했다. 특히 인간과 협업하는 차세대 로봇을 통해 그룹이 제시하는 인간 중심 AI 로보틱스 비전을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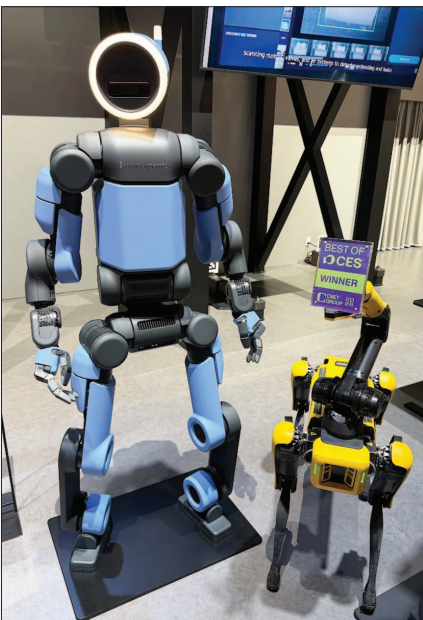
CNET은 “아틀라스는 CES 2026에서 확인한 다수의 휴머노이드 로봇 가운데 단

연 최고였다”며 “전시장에서 시연된 프로토타입은 자연스러운 보행으로 깊은 인상을 남겼고, 양산형에 가까운 제품 버전은 올해부터 현대차그룹 제조 공장 투입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고 평가했다.

아틀라스는 2028년 미국 조지아주 서배너에 위치한 현대자동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에 우선 투입될 예정이다. 부품 시퀀싱 등 안전성과 품질 향상 효과가 검증된 공정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적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30년까지는 작업 범위를 각종 부품 조립 공정으로 확대하고, 반복 작업 및 중량물 취급 등 더 복잡한 공정으로 역할을 확장해 근로자의 작업 환경을 더욱 안전하게 하고 스마트 팩토리 혁신을 가속화할 예정이다. 이후 성능 검증을 바탕으로 그룹의 글로벌 생산 거점 전반으로 확대 적용을 추진한다.

보스턴다이나믹스 CEO 로버트 플레이



현대차그룹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가 CES 2026에서 글로벌 IT 전문 매체 CNET이 선정하는 Best of CES 2026에서 ‘최고 로봇’ 상을 수상했다.

터는 “아틀라스는 우리가 개발한 로봇 중 가장 뛰어난 모델이며, 이번 수상은 세계 최고 수준의 휴머노이드를 시장에 선보이기 위한 팀의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완벽한 시공, 완전한 안전”

대선소방그룹이 함께하겠습니다.



(자)대선소방설비산업 (주)일등소방

(주)대선이엔지

(자)대선산업개발 (주)엔에프건설

(주)유덕전기소방공사

광주 서구 유덕로6번길 34(대선소방그룹)
E-mail : hd0119@hanmail.net
Fax : 062-371-7119
☎ Tel : 062-381-7119